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2019학년도 제4차 회의록

| |
|---|
| 위원장 서명 |
|  |

1. 회의 일시 : 2019. 10. 8(화) 15:00 ~ 17:00
2. 회의 장소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601호 중회의실
3. 회의 참석자
 - 위원장 및 위원(6명) : 조기석, 김희진, 진정란, 노문이, 유정은, 윤이식
 - 간 사(1명) : 최호준
 - 불 참(1명) : 문승현
4. 회의 안건
 -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건
 - 기타 학교 현안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조기석 위원장 교직원 2인, 학생대표 2인 이상의 출석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9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를 선언함.
6. 회의내용
 - 1)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건
 - 조기석 위원장 :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에 관하여 심의 하고자 함.
 - 관련 현황 설명을 위해 김종렬 총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 함.

서명 :  김희진  진정란  노문이  문승현  유정은  윤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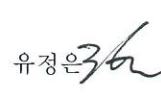
- 김종렬 총장 : 관련 법령 확인결과, 등록금회계에서 예산 총액의 10%이상을 건축 관련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되어있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등록금회계에서 10%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것 같진 않음. 하지만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취소하지 않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음.
- 유정은 위원 : 등록금회계가 아니라면 어떠한 비용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건지 질의함.
- 김종렬 총장 : 비등록금회계 자금으로 구입할 계획임.
- 유정은 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고 의결 사항이 예산 및 결산, 등록금회계에서 자금예산서 총액의 10% 이상의 비용으로 토지를 구입할 때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올해의 지출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질의함.
- 김종렬 총장 : 모든 자료를 오픈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은 맞지만, 오늘 위원회가 정식 개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 없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함.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받게 되어있음. 토지를 구입하겠다는 의견은 법인과 학교의 생각이며,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기구(교육부, 사학진흥재단 등)들이 있음. 다음 주 해당 사안에 대해 월요일에 교원 대표, 직원 대표를 모시고 설명을 다시 하려고 하며,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음. 등록금회계의 10%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며, 혹시 사용하게 되더라도 4~5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이러한 이유로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고 회의를 진행하겠음.
- 유정은 위원 : 그럼 차후에 위법한 사항이 생기면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인지 문의함.
- 김종렬 총장 : 위법한 일은 없을 것임.
- 유정은 위원 : 토지 매입에 대해 지난 토요일에 학과 대표들에게 설문을 진행했으며 모두가 반대의 의견을 표출하였음. 학교 홈페이지도 엉망인데 무슨 땅을 사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김종렬 총장 : 홈페이지는 고치겠다고 답변함.
- 유정은 위원 : 거기에 대한 약속을 요구함. 총장 취임 이래 건축재정을 시행하면서 예산을 허투루 쓸 수 없다고 하며 아껴 왔는데, 홈페이지는 거의 나아진 부분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학부 대표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학부 대표 및 교수들이 대부분 반대하는데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됨.
- 김종렬 총장 : 반대하는 것은 좋으나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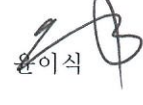
서명:  김 Jong-ryul

 김종렬

 노문이

문승현

유정은 

 김이식

- 유정은 위원 : 토지를 꼭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질의함.
- 김중렬 총장 : 물론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토지를 구입해도 큰 무리가 안 생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상황임
- 유정은 위원 : 분위기가 구성원이 아닌 재단에서 구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재단 자금으로 구입하면 안 되는지 질의함.
- 김중렬 총장 : 그 부분은 기존에 설명을 했던 부분이며, 자금 조달 방법이 계속 바뀌고 있음. 지금 은행도 접촉하고 있는 상황임.
- 유정은 위원 : 홈페이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함.
- 김중렬 총장 : 만약 땅을 사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고려하고 고민해야 할 요소가 있겠지만 이미 방향이 잡힌 지금은 현 상황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함. 다가오는 이사회에 이 안건을 올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회에 상정은 해야 함. 등록금회계에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기채로 자금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조율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며 위법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임.
- 노문이 위원 : 온라인 환경 개선이 우선시 될 수는 없는지 질의함.
- 김중렬 총장 :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음.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적은 예산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부분부터 실행에 옮길 계획임.
- 노문이 위원 : 학생들과 교원들이 편안한 학교를 원하는 것이지 재단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것은 원치 않음.
- 김중렬 총장 : 분명한 사실은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사이버외대의 재산이 되는 것임.
- 유정은 위원 : 타 학교에서 재단과 반씩 부담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결국에는 재단에서 이익을 가져갔다고 들었음.
- 김중렬 총장 :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법적으로 그런 문제는 일어날 수 없음. 학교는 법인격이 없어 학교 이름으로 등기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소유는 재단으로 되지만, 건물대장에는 학교 이름이 분명히 명시됨. 그건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이며, 오늘 설명하는 사안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하겠다고 덧붙임.
- 진정란 위원 : 교수들과 학생들의 의견 중 공통적인 것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수 학습 활동 툴, 홈페이지 등을 개선하고 만들어 줄 것이냐는 것에 대한 의문임.
- 김중렬 총장 :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진정란 위원 :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서명 : 김희찬 진정란 노문이 문승현 유정은 윤이식

- 김종렬 총장 :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 그에 대한 정보를 아직 충분히 얻지 못해 의사결정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못한 부분이 있음. 해당 업무의 인력배치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필요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것임.
- 조기석 위원장 : 우리 LMS 시스템은 커스터마이징된 것임. 쓰다 보면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실무 팀이 그 때마다 잘 고침. 지금 투자를 해서 새롭게 홈페이지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버전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잘 적합한지, 우리 실정에 가장 적절한 수준의 투자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음.
- 유정은 위원 : 이와 관련, 학생들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홈페이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 김종렬 총장 : 이미 학교에서 관련 TF를 발족했음.
- 유정은 위원 : 학생들 가운데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TF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함.
- 김종렬 총장 : 위원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덧붙여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15년 된 홈페이지가 노후화되었다는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는데 총장 취임 전에도 이미 부분적인 교체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어왔음. 그런데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함.
- 유정은 위원 : 눈먼 돈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김종렬 총장 : 학생들을 포함한 임시위원회를 조직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함.
- 유정은 위원 : 다시 주제를 돌려서, 토지 매입에 관해서 총학생회의 의견은 결사반대라고 강조함.
- 윤이식 위원 : 오늘 의견과 함께 교원들, 직원들과 다시 만나는 다음 주 월요일 자리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좋겠음.
- 김종렬 총장 : 우선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불가피하기에 안건을 상신해서 판단을 받아보겠음.
- 유정은 위원 : 토지 매입 자금 현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김종렬 총장 : 기채에 대해서는 법인이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임. 학교에서 빚을 지지 않는 것이며 비등록금 부분에서 일부 들어가는 돈이 있음. 등록금회계에는 손을 대지 않기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금 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임.
- 윤이식 위원 : 기채의 주체는 법인이 되는 것인지 문의함.
- 김종렬 총장 : 법인이 지급보증을 해야 함.
- 노문이 위원 : 등록금회계에서 10%이상 사용하게 되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다

서명 : 김희현

진정란

노문이

문승현

유정은 윤이식

시 개최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 미만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쓸 수 있다는 말인지 문의함.

- 김종렬 총장 : 등록금회계의 10%인 약 18억의 정도를 사용하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며, 등록금회계 사용 정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로 안내하겠음.
- 유정은 위원 : 여기 참석한 학생 위원들은 학부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것임.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자금을 쓴다고 하면 여기 참석한 위원들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
- 김희진 위원 : 토지 매입 비용은 120억원이지만 건물이 올라가면 최소 200억 원에서 220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큰 사안인데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 예상함.
- 김종렬 총장 :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음.
- 김희진 위원 : 그래도 교직원의 99%가 반대하는 일임.
- 김종렬 총장 :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임.
- 김희진 위원 : 꼭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정당성과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번 입시, 앞으로의 입시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있기에 향후 5년 동안 입시가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음. 그렇기에 이 사안을 이렇게 급하기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 김종렬 총장 : 비판을 하는 것은 좋은데 대안을 마련해놓고 비판해야 함. 지금 상황에서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김희진 위원 : 우리가 꼭 해야 한다면, 재단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5:5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김종렬 총장 : 재단이 원한다고 이야기 한적 없으며, 또한 법인이 기채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그런 취지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음. 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재단에서 100% 맡도 안 되는 일을 시킨다면 거부해야겠지만 이 사안은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님.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법인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음.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다면 제시하겠으나 그런 상황이 아님. 타 회의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퇴장 하겠으며, 이후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달해주기 바람.
- 총장, 진정란 위원이 퇴장함.
- 윤이식 위원 : 총장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여기 위원들의 의사는 기록으로 남겨서 전달하면 될 것 같음.

서명 김희진

진정란

노문익

문승현

유정은 윤이식

- 유정은 위원 :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처음 있는 일이라 익숙하지 않음. 교수협의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교원들이 힘들어하는 분위기가 느껴짐.
- 조기석 위원장 : 오늘 회의의 성격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정리함. 이 사안은 등록금회계에서 10%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는 건이 아니므로 의결 대상이 아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최종 의결권을 가진 것도 아니며, 단순히 찬반 의견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다른 구성원들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봐야 함.
- 유정은 위원 : 그러면 지난번 등록금심의위원회도 의결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인지 질의함.
- 조기석 위원장 : 심의 사항이었으나, 의결의 형태로 진행을 한 것임.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록금회계에서 10%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이번 안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이사회에서도 반대의 의견을 발언했었음.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방향이 옳은 것인지 고민해봐야함.
- 노문이 위원 : 반드시 이 시점에 그 토지를 사야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인지 질문함.
- 조기석 위원장 : 토지든 건물이든 매입할 때에는 타이밍과 기회가 있음. 법인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것임. 교수들의 의견은 매입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 재정적 부담 때문에 우려하는 것임. 단순한 논리로는 당장 지출이 부담되어 반대할 수도 있지만, 반대를 하려면 대안이 있어야하며 장기적인 시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김희진 위원 :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 가격이 상승하여도 그 수익이 학교 수입이 아닌 법인 수입으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함.
- 조기석 위원장 : 그렇지 않다고 답변함. 수익사업을 해서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자금을 투입한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면 될 것임. 현재 사이버관 1층 수익분배에 대해서도 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김희진 위원 : 건물을 짓는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총 비용이 220억이라면, 150억 원의 빚을 져야 하고, 이는 지금 올리고 있는 수익에 비해 지나친 수준임. 그 부분을 법인에서 얼마나 부담해줄지, 당장 입시도 어떻게 될지, 수익은 어떻게 나눌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임. 빚을 낼 때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뒀다하고 생각함.
- 조기석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음. 우리가 가진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맞지만 빚을 지는 것은 법인에서 책임을 진다고 이미 정리했음. 사건을 밝히면 처음에는 다른 교직원들이 반대하니까 단순한 논리로

서명: 김희진

김희진

노문이

문승현

유정은 윤이석

반대했었지만 법인에서 함께 투자하고 우리가 기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함.

- 김희진 위원 : 현재 있는 기금만 사용한다면 약 150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함. 아무런 약조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 150억 원의 빚을 지면 법인에서 이를 대줄 것인지 의문임. 사이버관을 취득했던 과정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또한, 위원장이 어제 공청회 자리에서 모아진 전체 교직원의 의견을 지금 회의 자리에서 대변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함.
- 조기석 위원장 : 교직원들이 대부분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한 건 맞음. 그런데 그 반대 사유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었음. 학교가 빚을 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법인과 공동으로 투자를 한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어제 논의했던 것은 아님.
- 김희진 위원 : 그렇지 않음. 어제 공청회 자리에서 부분적으로 법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총장의 설명이 있었음.
- 조기석 위원장 : 일부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비율이나 금액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음.
- 유정은 위원 : 대학평의원회에서는 50:50이라고 이야기했었음. 그리고 그것은 총장님의 생각이지 법인에서 승인한 사항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음.
- 조기석 위원장 : 지난번 이사회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를 물어봤었음. 이번 이사회에도 이번 회의 결과가 전달 될 것이라 생각함. 교사의 외연 확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인도 같이 투자하고, 기채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 윤이식 위원 : 법인 대 학교 투자비율이 50:50 이라던지,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한다는 것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반대한다고 생각함.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요청을 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함.
- 조기석 위원장 : 어제 공청회 자리는 찬반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한 자리였지, 정확한 투자 비율을 결정하거나 하진 않았음.
- 김희진 위원 : 위원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함. 어제 분위기는 총장님 조차도 인정할 만큼 전체가 반대했음. 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50%가 최초 토지 매입비용의 50%인지, 건물의 완공까지 들어가는 전체 비용의 50%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음.
- 윤이식 위원 : 현재 그 부분이 구성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임.
- 조기석 위원장 : 지금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회의록에 남기겠음.
- 윤이식 위원 : 건축비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의 50%를 법인에서 부담하고, LMS

서명 김희진

조기석

노문안

문승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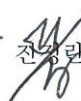
유정은 윤이식



- 개선과 함께 진행한다면 총학 쪽 위원은 찬성할 것인지 질문함.
- 노문이 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 김희진 위원 :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매입과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고 그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해야 함. 또한, 이번 안건을 진행했을 때 이자 수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LMS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듦. 지금 학교가 갖고 있는 건축기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빚을 지게 된다고 생각함. 지금 비등록금회계에서 가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질문함.
 - 노문이 위원 :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음.
 - 유정은 위원 : 등록금회계에서 10% 이상 사용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의의 의견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내용을 바꾼 것이라 생각함.
 - 조기석 위원장 : 기금현황 및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최호준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함.
 - 최호준 간사 : 현재 건축기금 36억 원, 교육환경개선기금 40억 원으로 총 76억 원을 현재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함. 지난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등록금회계에서 사용할지, 비등록금회계에서 사용할지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며 교지를 취득을 한다는 이야기만 했었음. 등록금회계에서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고 건물은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 김희진 위원 : 지금 쓸 수 있는 금액은 70억 원 정도인데 건축비용이 220억 원 들어가면 부채가 150억 원임. 그 150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이자수익은 줄어들고 이자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저출산과 맞물려 앞으로의 입시가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하며 지금 그 토지를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교직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음. 왜 사야 되는지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위원장은 이 의견을 이 자리에서 잘 전달해주시기 바람.
 - 유정은 위원 : 지난번 대학평의원에서 전체 매입 비용이 200억이 소요된다면, 기금 76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절반에서 부담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채를 쓰겠다고 총장님이 발언했었음.
 - 윤이식 위원 : 지금 그 부분이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함.
 - 유정은 위원 : 그때도 총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 했었고, 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함. 지금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구성원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 불쾌함.
 - 김희진 위원 : 사이버관을 준공할 때에도 구성원들은 억울함이 있었음. 그러나 그때는 모든 구성원들이 건물을 가져야 된다는 통일된 의견이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름.

서명 : 김희진 진정 노문 문승현 유정은 윤이식

- 8 -

- 유정은 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황이 너무 가벼워졌음.
- 김희진 위원 : 학교는 지금 위기의 시기임.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교수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임.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주길 바람.
- 조기석 위원장 : 지금 여기는 어떠한 집단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며 안전에 대해 각자 위원들의 생각을 발언하는 자리임.
- 유정은 위원 : 학생 위원들은 학부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대변하고 있는 것임.
- 노문익 위원 : 빚을 저가는 위험부담을 지면서도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 안전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음.
- 윤이식 위원 : 이러한 의견들을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주길 바람.
- 김희진 위원 : 이사회에서도 반대하는 사항인지 질의함.
- 윤이식 위원 : 이사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법인에서도 추진할 수 없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며, 그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임.
- 유정은 위원 : 이사회 상신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는지 질의함.
- 조기석 위원장 : 이사회에는 안전을 상신하는 것이며, 첨부 자료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첨부함.
- 윤이식 위원 : 회의록이 안전으로 올라가는지 최호준 간사에게 질의함.
- 최호준 간사 : 올라가지 않는다고 답변함.
- 조기석 위원장 : 지난번 이사회에서는 회의 결과를 구두로 물어봤었음.
- 김희진 위원 : 다음 이사회는 누가 참석하는지 질의함.
- 조기석 위원장 : 이번 토지 매입 건은 기획처에서 참석함.
- 윤이식 위원 : 회의 전 다음 이사회에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10월 이사회에 내부 정서를 알리지 못하는 것인지 질의함.
- 조기석 위원장 : 사안이 중요한 경우 총장님이 가시기도 함.
- 유정은 위원 :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 조기석 위원장 : 이사장 및 이사가 10명 내외정도 되며 한국외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김희진 위원 : 지금 가용 자산이 70억 정도이며, 총 예상 비용은 220억 정도임. 150억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인이 자금을 일부 지원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부채로 안아야 할 비용이 130억 정도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조기석 위원장 : 모든 비용을 사이버외대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반대임. 하지만 무조건 반대가 아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함.
- 김희진 위원 : 위원장의 생각을 이해하기 힘들.
- 조기석 위원장 : 사이버외대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반대임.

서명 : 김희진  찬영란 

노문익  문승현 

유정은  윤이식 

- 김희진 위원 : 전체 금액 200억 중에 법인이 절반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위원장도 반대라는 의견을 회의록에 남겨주시기 바람. 또한 본인도 법인이 절반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반대임.
- 유정은 위원 : 학생 입장에서는 온라인교육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싶음. 2016년 이후로 학생들의 복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음.
- 김희진 위원 : 토지를 구입해서 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더 안 좋아질 수 밖에 없음.
- 노문이 위원 : 학생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토요일 다과 등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또 앞으로 예산이 더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우려스러움.
- 김희진 위원 : 외부위원 분들에게 개인시간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드리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 유정은 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이번처럼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음. ‘의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 한다면 더 이상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음.
- 조기석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없다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마치기로 함.

2) 기타 학교 현안

- 없음.

7. 폐회선언

- 조기석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함. 끝.

서명 김희진 전정란

노문이 문승현

유정은 윤이석